

Nanda

난다

Fuga

As I was born after it happened, I don't have any memories of the Korean War. I'm also not very familiar with the particular places where war is still occurring, or the divisions caused by it. I can only imagine war through the histories that are connected to specific events—the artificial models representing these histories, the worn out relics existing as proof of the historical moments, and faded photographs.

Photographs were taken during a pilgrimage in search of the remains of the war. They reflect the conditions of each site, tell stories about the situations, and show the items left there. Photography serves as tool to document, and in my work I use it to empathize for these situations while also revealing my personal views.

Unlike my earlier work where I had observed and recreated the behaviors of others, in this series, I attempted to include myself in the images. This came about initially because of certain restrictions in taking photographs under those conditions. Since I wanted to explore behavioral patterns that relied on those environments and situations, I thought including myself could in fact be more persuasive.

I turned my attention to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of the country, which has now turned into a type of spectacle for sightseeing. Therefore, I took photographs of the DMZ, the Observatory, the War Memorial Museum, Imjingak, the National Cemetery, war tombstones, and war memorial status. I had constantly observed the behaviors of visitors and although they might have been influenced by these places, they appeared too relaxed. Some time ago, I read an article in Time Magazine saying that Korea is 'in fuga', referring to the lack of sensitivity on

the issu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Fuga refers to avoidance. A psychological state to try to avoid warfare, perhaps a form of denial that we are not experiencing difficult and harsh situations. Six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War, and the current situation feels as distant as the amount of time that has passed.

푸가

나는 전쟁 후에 출생했고, 따라서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다. 또 분단이라던가 아직도 전쟁이 진행중인 특수한 국가적 환경을 잘 실감하지 못한다. 다만 사건을 확정시킨 역사와 그 역사에 기대어 재현한 가공된 모형들, 당시를 증명하는 낡고 슬픔이 배어있는 전쟁 유품과 입자가 거친 사진들이 전달해주는 전쟁을 상상해 볼 뿐이다.

분단과 전쟁의 흔적을 순례하는 동안 기록된 사진들과 볼 수는 있지만 촬영이 금지되어 기록하지 못하는 것들,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 모든 것들이 얽혀 하나의 인상으로 만들어지고 나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확정시켰다. 나의 작업은 사진을 통한 기록에 의존하여 주관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작업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내가 그것을 다시 재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타인을 나와 함께 한 이미지에 배치시키는 변화를 시

도 했다. 처음에는 제한된 촬영 환경이 원인이었지만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강조하기에 나의 재연과 그대로의 기록을 함께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타인과 나의 같음과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주로 볼거리가 된 전쟁과 분단 상황에 주목하였다. 관광 상품으로 준비되고 있는 DMZ, 전방대, 전쟁 기념관, 임진각, 현충원, 전국에 세워진 전적비와 전쟁 기념 동상을 촬영하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학습이나 볼거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듯 여유롭고 즐거워 보였다. 얼마 전 남북 대치 상황에 둔감한 한국을 가리켜 '푸가상태' 라고 말한 타임의 기사를 보았다. 푸가는 도주逃走를 의미한다. 전쟁으로부터 도주하려는 심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지 않다는 자기최면이다. 구경꾼은 언제나 상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전쟁 후 60년, 현재의 상황은 그 시간만큼이나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다.









